

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(제112-115문) : 제9~10계명

최민호 목사 (피스메이커교회)

1. 십계명 해석의 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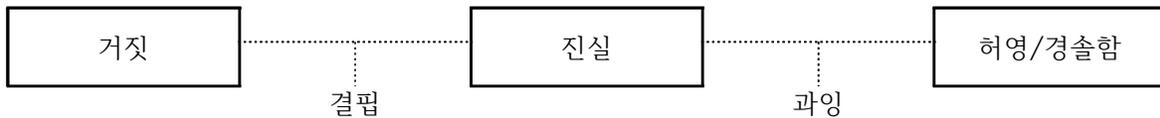
- (1) 십계명의 명령(~하라 Do) / 금지(~하지 말라 Do not) 조항의 근본 원인을 고려하라
(ex) 살인하지 말라 (→ 미움, 복수심을 버리라)
- (2) **확대해석** : 반대되는 것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라
(ex) 살인하지 말라 (→ 남을 해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남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.)
- (3) **중용(中庸)**의 원리 - 어느 쪽에든지 치우침이 없는 상태 (비겁-용기-만용)

2. 율법(십계명) 준수의 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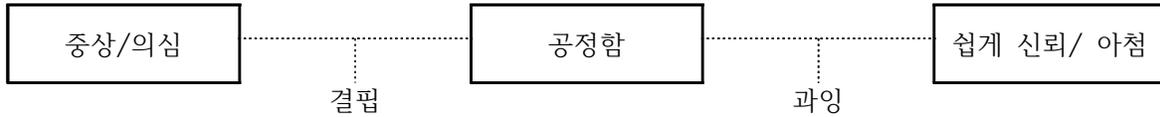
- (1)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: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율법이듯이 그리스도인도 율법에 충실해야 함(→ 성화)
- (2) 율법 준수는 복을 받는 길 : 율법에는 약속이 있고,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여 복을 얻게 됨.
(ex)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
(출31:12-13)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
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
↳ 거룩의 복 (→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승리, 영혼 평안, 하나님께서 책임)
- (3) 영적 상급 :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, 상급(rewards)이 있음
상급이란 ① 율법을 준수하고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복(blessing)
② 천국에서 지상의 삶을 평가하여 칭찬해주시는 것

3. 제9계명 “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”

- (1) 목적 : 사람들 사이에 진실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 → 진실함=신뢰 / 거짓=불신
↳ 진리의 기준 - 하나님
(롬3:4)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(→ 하나님의 말씀)
- (2) 진실함의 중요성 :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말이나 삶에서 항상 진실해야 한다. (아리스토텔레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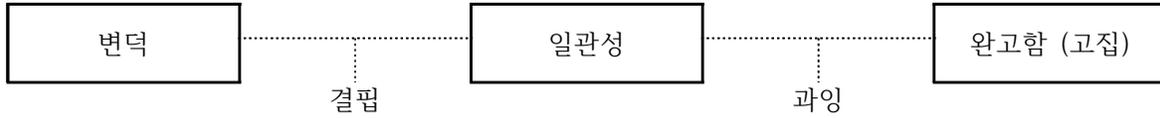


- ① 참된 지식을 얻고자 애쓰지 않는 소홀함, 악의가 담겨있는 고의적인 무지 = 거짓
- ②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= 허영/경솔함
- 적합하지 않은 조언이나 말 (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)
- (3) 선의의 거짓말이 가능한가?
(성경스토리) 애굽의 산파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모세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복주심.
⇒ 그것은 그들의 선한 거짓말 때문이 아니고,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 때문
- (4) 진실함의 다른 모습들
① 공정함 ⇒ 바르고 정직하게 말하거나 행동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, 의심적인 일도 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호의로 대해주는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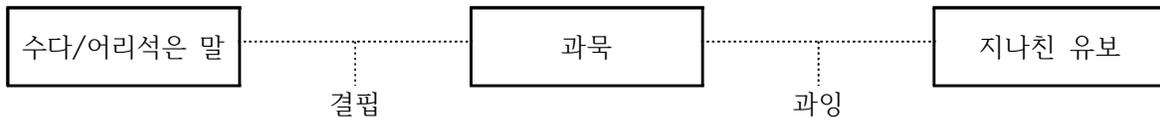
② 단순함 ⇒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진실하고 옳은 것을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
cf. 가장된 단순함, 행동과 언사에 나타나는 이중성

③ 일관성 ⇒ 진실함을 떠나지 않는 것. 그 목적과 계획을 쉽게 바꾸지 않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



④ 유순함 ⇒ 기존의 생각을 굴복하고 더 진실에 가까운 사람에게 동의해주는 것

⑤ 과묵 ⇒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



⑥ 친절 ⇒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선의를 보여주는 태도

⑦ 세련 ⇒ 진실이 드러나도록 상황과 상대방에게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
cf. 무례, 조롱, 험담

4. 제10계명 “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” (⇨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)

(1) 목적 :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, 이웃에 대해서 탐심을 절제하는 것 (⇨ original righteousness)

- 하나님에 대한 원죄는 불순종으로 / 이웃에 대한 원죄는 욕욕(concupiscence)으로 나타남

- 이웃에 대해서 무절제한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됨

(골3:5)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

(2) 펠라기우스주의(Pelagianism)의 주장에 대해서

주된 주장 ① 원죄는 인간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기에 (전적 타락 부인)

②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에 은총없이 선을 행할 수 있다.

(⇨ 인간의 자유의지로 완전한 도덕성에 이를 수 있음. 도덕주의자)

③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욕욕은 죄가 아니며, 세례를 받으면 원죄는 없어진다.

(성경적 관점) 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,

②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, 선행을 할 수 있다.

③ 본성적인 욕욕도 죄이며, 중생한 신자에게도 여전히 원죄로 말미암는 부패와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.

다만, 하나님의 은혜 (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)가 원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한다.

죄책(guilty)만이 제거된다.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패와 죄로 기우는 성향은 여전히 남는다.

⇨ 성도가 온전히 행위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함.

(3)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론

⇨ 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. 율법의 준수가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.

② 율법에는 성화의 용도가 있고, 약속에 따른 보상이 있으며,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.

③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회개를 전하라고 명령하셨다. 믿음은 구원의 길을, 회개는 성화의 길을 보여준다.